

# 다이쇼 시대의 여성 복식에 나타난 서양화 현상\*

이경규\*\*  
lk5120@deu.ac.kr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일본 근대 복식에 나타난 서양화  |
| 2. 서양화의 배경    | 3.1 의복                |
| 2.1 생활문화의 변화  | 3.1.1 모방에 의한 서양화      |
| 2.2 도시문화의 발달  | 3.1.2 착용방법의 서양화       |
| 2.3 관동대지진과 복구 | 3.1.3 전통복의 변형에 의한 서양화 |
| 2.4 여성 잡지의 발달 | 3.2 화장과 헤어스타일         |
|               | 4. 나오며                |

主題語: 다이쇼(Taishō), 서양화(Westernization), 화양절충(Compromised style between the Western style and the Japanese style), 양복(Western styles), 화복(Japanese style)

## 1. 들어가며

다이쇼 시대는 산업화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근대적 일상 생활과 서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은 서양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동시에 서양문화의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본 여성 복식에 나타난 서양화 현상을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근대 일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2AA010)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의상학과 외래교수

일본 복식의 서양화는 메이지, 다이쇼기를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쇼와 초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즈음까지는 남성은 대부분이, 여성도 어린이나 젊은층이 양장을 주로 하는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쟁 중 비상시 하에서 서양복의 필요성이 높아져 전후 아메리카 추종시대를 거치자 더욱 넓은 층에 걸쳐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풍과 일본풍 사이에서 양자의 선택이 아니라 서양풍 중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부를 선택해 종래의 것에 절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일본풍을 창출해냈다. 특히 다이쇼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양화 현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서구문화와 첨단 기술이 더 이상 낫설지 않은 단계로 접어들었다. 메이지기 문명개화가 일부 지배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전개되었다고 하면 다이쇼기의 서양화와 근대문물의 수용은 도시 중하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서구열강과 조우한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각 사회에 있어서 서구문물의 매개체적 전달자적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제국주의 식민체제가 구축된 이후 더 직접적으로 근대문물 이식자 역할을 하였다.

1차 대전을 계기로 시작된 도시생활의 확장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근대적 생활경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새로운 생활환경과 문화경험에 따라 개인 생활 및 복식 자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도시인 전통적인 생활환경과는 다른 생활을 영위했고, 이러한 도시생활의 경험은 서양화라는 개념과 함께 새로운 문화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서양이라는 다른 문화권의 이질적인 문화요소가 동양의 문화에 융합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상인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동서양은 상호작용을 통해 외래문화인 서양의 문화 요소가 퇴보하는 동양의 문화요소에 대체되기도 하며 기존의 전통 문화요소에 의해서 서양문화가 소멸되어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복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통 복식 문화를 고수하던 일본은 문명개화를 통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근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의식주 중 서양화가 일찍 진행된 부분은 의된 이며 근대 일본 복식의 서양화와 이를 수용하고 변용시켜 차용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당시 서구화된 일본인의 인식과 복식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에 의해 도시발달을 중심으로 근대화된 다이쇼시대의 서양화의 배경과 이러한 배경은 근대 일본복식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고, 근대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복식의 서양화 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서양화의 배경

### 2.1 생활문화의 변화

다이쇼기 일본인들이 도시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서양사회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과 지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문화생활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고, 일본인들은 자동차, 전화, 문화주택과 같은 상품을 소비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1920년대의 문화생활은 일본정부가 1차 대전 직후 전개한 생활개선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다리미, 축음기나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주방기구, 서양스타일의 의복, 영양가 높은 음식물과 같은 제품들이 편리함, 유용성, 경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1)</sup>

생활개선운동은 메이지기 일본 정부의 구화정책(歐和政策)의해 시작된 생활개선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기의 개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衣服改良, 飲食改良, 家屋改良, 文字改良, 教育改良, 言語改良, 小説改良, 宗教改良, 風體改良, 新聞改良, 婦人改良, 束髮改良, 게다改良, 運動改良, 旅館改良, 쓰레기통改良, 便所改良, 藥局改良」<sup>2)</sup>

개량운동 중 의생활과 관련한 개량으로 의복개량, 속발개량, 게다개량 등이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복식은 시각적으로 가장 빨리 눈에 띄게 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시 나타난 많은 생활개량항목 중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을 것이라 본다.

다이쇼기에 서양화가 자리잡은 것은 메이지기와 같이 단순한 서양에 대한 동경만은 아니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활체계가 등장했고, 변화된 생활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델을 서양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메이지기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 함동주(2010)「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경험과 이상적 여성상-『主婦之友』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제41집, p.1

2) 遠祭武(1967)『近代服飾史』雄山閣, pp.12-13

## 2.2 도시문화의 발달

일러전쟁(日露戦争)경부터 당시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오사카(大阪)·고베(神戸)에서 도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인의 생활양식도 이 시대를 뿌리고 한 것이 많다. 도시나 교통기관이 정비되어 노면전차(路面電車)나 아오바스(青バス)<sup>3)</sup>나 엔타로바스(円太郎バス)<sup>4)</sup> 등의 승합버스가 시내를 다니고 다이쇼 후기부터 쇼와 초기까지의 오사카시대에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청일전쟁(日清戦争, 1894~1895)을 거쳐 동양 제일의 무역항이 된 고베항으로 유입된 최신 구미문화를 위성도시인 후쿠오카로 확산시켜 모던예술·문화·생활양식이 탄생되었다. 오사카·고베는 관동대지진(1923) 이후 동경으로부터 문화인의 이주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다이쇼 중기 도시에 서 양풍생활을 받아들인 문화주택(文化住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유행되었다.

동경에서는 관동대지진에 의한 화재의 영향으로 에도기부터 시타마치(下町)가 에도시대의 거리를 잃은 한편 오테마치지구(大手町地区)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빌딩의 건설이 제기되어 일대에 오피스거리가 만들어졌다. 1918년 전문학교에서 승격된 형태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령과 고등학교령이 공시되어 고등교육기관이 정비되어 동경제대의 졸업생의 반수가 민간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셀러리맨이 대중이 주인공이 된 시대이기도 했다. 메이지시대까지 포복점(呉服屋)이었던 노포(老舗)가 차츰 「백화점(百貨店)」으로 변신하여 긴자(銀座)는 백화점 거리가 되었다. 메이지시대의 석유난류가 사라지고 상수도, 가스, 전기가 보급되었다. 가정 전기 기구로는 선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다리미, 전기 콘로가 보급되었다.<sup>5)</sup>

도시의 변화기는 서로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빠르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도시문화에 맞추어 치장되어 갔다. 물건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맺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이 생산되고, 새로움 속에서 관계가 재생산된다. 스피드와 유행이 요구되고, 모던결과 모던보이가 꽃이 되는 공간이었다. <sup>6)</sup>

## 2.3 관동대지진과 복구

근대 일본인들의 복식의 서양화를 확산시킨 배경에는 관동대지진을 들 수 있다. 다이쇼

3) 東京乗合自動車

4) 汐文社(2007)『明治・大正・昭和の暮らし②大正の暮らしと文化』汐文社

5) 岡村 道雄 외(2002)『学習漫画 日本の歴史 大正時代 -大正デモクラシー-』集英社, p.125

6) 나리타 류이치·서민교 옮김(2003)『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뿌리와 이파리, p.53

12년(1923) 지진에 의한 화재의 대참사 후 도시의 개조에 주력하게 된다. 그에 따라 고층 건축과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개인주택과 문화주택이 재건되었다. 또한 영국풍 스타일의 현대 청년이 출현하고 단발머리의 짧은 스커트의 여성이 증가하게 되고 간단복(簡單服)이 유행했고, 그 해 여름 약식양복이라 불리어져 점차 양장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쇼와7년(1932) 백목옥 백화점의 3층의 불이 나 피해가 많았던 것은 화장(和裝) 때문에 피난이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되어 일반시민의 양장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2.4 여성 잡지의 발달

1차 대전 이후 일본은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의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이러한 양상은 일본인의 생활문화에 관한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매개체로서 등장한 것이 여성잡지였다.

다이쇼기 여성이 하나의 문화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의 비난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신여성, 새로운 여자, 모던 걸 등의 이름으로 근대 도시문화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양장과 기모노 차림이 반반이지만 양산과 하이힐로 멋을 낸 동경의 여성들은 도시문화를 주도하고 향유한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발간된 여성잡지에서 근대여성은 전통과 모던, 자유와 미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반영하는 역할도 병행했다.

특히, 다이쇼시대 발간된 『슈후노토모(主婦之友)』는 고학력 여성뿐 아니라 공장 여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성에게 한 집안의 주부로서의 자각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용기사와 논평이 주된 내용이었다. 기사와 육아, 독자기고, 여성의 삶에 대한 논문, 미용과 패션기사 및 인터뷰와 좌담회로 이루어져 있어 근대 도시 여성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 뉴스나 여성잡지의 실용기사는 이렇게 도시생활에서 생기는 일들과 내용의 카탈로그라고 할 수 있다. 또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엄청난 양의 광고는 도시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의 카탈로그이자 사람들의 욕구, 욕망의 카탈로그이다. 광고는 물건을 눈에 띄게 내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생활을 하라고 속삭이는 것이다.<sup>7)</sup>

7) 나리타 류이치 · 서민교 옮김(2003)『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뿌리와 이파리, pp.47-48

### 3. 일본 근대 복식에 나타난 서양화

#### 3.1 의복

일본의서양복 도입은 우선 남성의 공적인 의복에서 제도화를 통해서였다. 이는 오랫동안 일본인의 서양복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서양복은 일본옷보다도 공적이며 정식의 의복이라는 관념을 낳았다.

서양복 착용에 대한 이러한 과정은 서양복과 일본옷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를 낳아서 여성의 경우 예장이나 차림옷은 일본옷, 약장은 일본옷이나 간단한 형태의 서양복이라는 방법이 생겨났다.<sup>8)</sup>

##### 3.1.1 모방에 의한 서양화

다이쇼 시대 양복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성별, 계층별 의복의 차이가 뚜렷해져 남성 중에서도 관리(官吏), 실업계 고급사무직 등은 공용복장, 외출복으로 양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군인, 경찰관, 철도원, 학생 등은 신분에 맞는 제복을 입는 것이 의무적이었고, 이는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양복이었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과 상점의 점원, 기능직과 같은 민간인은 직종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 차림이 보통이었다.

나카이카후우가 저술한 『양복론(洋服論)』에 다이쇼 초기 서양복 차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서양복을 착용하고서도 부채를 손에 들고 사람과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부채질을 한다. 이를 보고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도 없는 것 같다. 이는 일본 당대의 특이한 풍습이다. 서양에서는 춥고 더운 것에 관계없이 부채를 손에 드는 일이 없다. 부채는 여성들이 의상을 갖추기 위해서 소지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스틱과 마찬가지로이다. 여성의 경우도 사람들 앞에서 부채를 펴고 부쳐대는 일은 없다. 반 정도 펼쳐들고 얼굴을 가려서 장식의 하늬에 사용할 뿐이다. 일본의 요즘 모습을 보면, 신문기자들은 타테에리가 달린 흰옷으로 남의 집에 와서는 담배를 물고는 부채질을 해대는데, 그 가운데에는 가슴의 단추를 풀어서 속옷인 메리야스 셔츠를 보이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신기하다.<sup>9)</sup>

8) 코이케미즈에 著·최은주 역(2004)『日本生活文化史』어문학사, p.168

9) 이케미즈에 著·최은주 역, 『상계서』, pp.205-206

이상에서는 회사원의 경우 제복은 아니지만 제복처럼 모두가 다테에리의 서양복을 입고 있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다테에리의 유행은 러일전쟁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인의 일시적인 기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이나 철도원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테에리의 제복을 착용했다.<그림 2> 서양에서 여성이 장식적으로 사용하던 부채를 일본에서는 남성이 실제 무더운 일본 날씨에 다테에리의 제복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습관이 일본식차림에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三越呉服店の広告    <그림 2> 다테에리 학생복

<그림 1>은 미츠코시오복점(三越呉服店)의 인바네스코트(インバネスコート)<sup>10)</sup>광고이다. 코트에 짧은 케이프가 붙어있는 것으로 점차 케이프가 길어져 망토와 같이 되었다. 케이프의 안에 소매는 없어 와후쿠(和服) 위에도 착용할 수 있어 메이지 말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널리 애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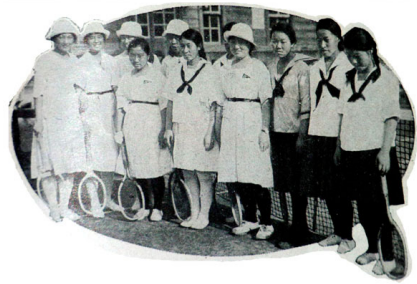
광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流行型詰襟インバネス	無地甲斐絹総裏付丈鯨尺三尺より三尺二寸迄
霜降メルトン 14円50銭	此度特に御好みあらば、一々見積書送呈申上候
霜降綾 17円80銭	戦後は殆ど見かけることはありません。
頭巾なし	少々値段が高いですが、是非とも手に入れたい一品です。

일반 여성의 복장이 서양화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다이쇼8년 관동대지진과 쇼와 7년 백목옥(白木屋) 백화점의 화재사고로 당시 엄청난 재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없었던 것은

10) 日本語로는 とんび. 이중 외투

활동성이 떨어지는 와후쿠는 분석이 사회 속에서 여성의 복식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양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 15년 동안은 메이지의 양복을 계승하면서 일본 고유의 장식이나 지수를 서양의 유행과 조화시켜 다이쇼의 독자적인 양복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양장이 근대화 되었다.



<그림 3> 원피스의 부인과 銀座의 모가 <그림 4> 세라복(女學生)<sup>11)</sup>

<그림 3>은 양복 양식의 원피스로 상의와 스커트가 붙어 있는 형태로, 모자와 구두, 양말을 신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 1910년대 유행한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원피스를 보면 당시 서양패션의 흐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모가는 모던걸의 줄임말로 짧은 스커트에 단발, 범종형 모자를 눌러쓰고 댄스홀 등에 출입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림 4>는 다이쇼 9년 平安女學校에서 채용한 여학생복인 세라복이다. 세라복은 서양의 수병이나 해군이 입었던 제복에서 발전한 양복으로 원래 남성복에서 시작하였으므로 바지와 갖춰 입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본에 들어와 여학생복이 되면서 스커트와 함께 착용하게 되었다. 일본 복식의 서양화에 있어 남성의 복식이 여성복으로 변용된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3.1.2 착용방법의 서양화

착용방법의 서양화는 화양절충(和洋折衷)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대 일본 복식의 서양화에

11) 西村秀一(2011)『近代の服飾-都市風俗の變化と着物文様の變遷』, p.19



있어 쉽고 자연스럽게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계층에서만 행해지던 서양화 현상이 여러 계층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다.

화양절충은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고 계단을 신거나, 양복 위에 하오리(羽織)를 착용, 기모노를 착용하고 하이힐과 양산을 드는 등 서양옷인 요후쿠(洋服)와 일본옷인 와후쿠를 섞어 입어 절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양절충은 체형의 영향을 적게 받고 비교적 구입이 쉬웠던 물품인 모자, 구두, 양산, 숄, 핸드백과 같은 소품의 활용이 많았다. 그 결과 기모노 밑에 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화양절충의 경우 입는 상의와 하의의 조합, 입는 방법을 달리하여 나타났으며 그 예로는 기모노 위에 서양식 외투와 망토를 입거나 서양의 모직물로 기모노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절충으로 서양식 디자인에 일본의 문양과 직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외국으로 일본의 직물을 소개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통공예에 중사하는 직인들이 유럽의 디자인도 연구해 유럽 시장에 맞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일본의 수출 확대가 시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통문양을 이용한 로브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내수에 의해 보급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또한 화양절충의 형태로 의복의 서양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상류계층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5> 유럽풍 패션



<그림 6> 안경을 좋아하는 일본인

<그림 5>와 <그림 6>은 는 프랑스의 풍자화가인 조르주 비고가 그린 그림<sup>12)</sup><그림 5>는 거류지 호텔에서 서양손님을 받는 창부를 스케치한 것이다. 서양풍으로 올린 머리에 서양식 속옷을 입은 여성은 일본식 버선을 신고 있다. <그림 6> 은 안경을 좋아하는 일본인이라는

12) 박미경·홍선영 역·시미즈 이사오 저(2008)『프랑스인 풍자화가 조르주 비고가 본 근대일본』어문학사

제목의 그림으로 화복차림의 남성과 여성들이 안경을 소품으로 착용한 화양절충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 和歌山県橋本・高等女学校の 野球部<sup>13)</sup>

여학교 야구부의 모습으로 화복 유니폼에 모던한 모자를 쓴 것이 눈에 띈다. 활동성이 필요한 운동복의 경우 메이지기 로쿠메이칸 시대 이후 체조복을 시작으로 양복형태의 유니폼이 소개되었으나 대표적인 것이 부르머 스타일의 바지 형태의 체조복이었다. <그림 7>에 나타난 야구복의 경우도 하키마의 길이를 짧게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밑단을 조여 이전에 나타난 부르머 스타일로 개량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머리에 쓴 모자는 당시 유행한 클로쉐햇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착장방법에 있어 화양절충을 엿볼 수 있다.

### 3.1.3 전통복의 변형에 의한 서양화

근대 복식이 전통복에서 서양복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 복장 개량에 의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전통복의 형태가 개선되어 변형된 개량복이었다. 당시 지적된 전통화복의 단점은 긴소매, 옷자락, 가슴과 배를 누르는 오비 등으로 이들은 활동을 불편하게 하여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인체의 생리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통복의 서양화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타났다가 보다 실용에 의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나타나 널리 사용된 것은 개량복의 형태인 海老茶袴 형태였다.

서구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고소데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새로운 것은 여교사나 여학생 등 신여성들이 하키마를 착용한 것인데, 이것은 가슴을 조이는 오비를 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 신여성에게 적합하였다. 개량복은 메이지

13) 日本の歴史シリーズ20『大正デモクラシー』世界文

20년대부터 말기에 걸쳐 완성된 화복의 일종이다. 고소데는 공예적으로 아름다웠던 것이라도 노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에는 소매길이, 신장이 길고 오비의 폭도 넓고 길었으며, 착장상 여러 가지 끈도 몇 개나 있어 불편했다.

개량복인 海老茶袴를 실제로 제복으로 착용한 것은 짓센여학교(實踐女學校)가 최초였다. 교원이나 학생들은 화복을 개량하여 입기 시작하였다. 이 개량복은 상하 이부식(二部式) 구성으로 상의의 소매는 통수로 좁게 하고 하의는 하카마로 상하 모두 같은 직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림 8> 海老茶袴<sup>14)</sup>

하카마 스타일의 개량복<그림 8>은 처음에는 남자의 하카마를 그대로 착용함으로써 사회적 저항감이 있었지만 海老茶色<sup>15)</sup>의 하카마는 여성용 하카마로 무가 없었으므로 좌우 분할되지 않고 통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전통적인 여성복인 일부식인데 반에 하카마 스타일의 개량복은 서양의 투피스와 같이 여성복을 이부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가치를 둘 수 있다. 또한 전통복에 비해 간편하고 기능적이라는 것 외에 전통복의 기본형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개량복은 진보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의 양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복장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모노 스타일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전통의상인 기모노에 각종 염색기술이 더해져 서양풍의 다양한 문양이 첨가된 것이다. 메이지시대 기모노는 수수한 색이 주를 이루었고, 모직물과 자카드 직기에 의한 문직물, 화학 염료에 의한 염색 등이 서양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문양이 다양해져 아르누보 양식을 비롯한 각종 서양풍 문양도 등장하였다.

14) <http://kahuetaisyourouman.web.fc2.com/fassyon.html>(フアツシヨン大正)

15) 검은 자주빛, 검은 색을 띤 적갈색

<표 1> 전통의 변형을 통한 서양화

			
실내복 <sup>16)</sup> (a)	실내복 <sup>17)</sup> (b)	로브 <sup>18)</sup> (c)	서양화된 패턴 <sup>19)</sup> (d)

<표 1>은 전통의 변형을 통한 서양화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a)는 1870년대 전기 요코하마의 시이노 쇼베상점의 제품으로 여성용 실내복이다. 일본 전통 직물의 누빔 기법으로 응용한 것으로 추위에 적합한 따로 의복에 사용하지 않는 유럽인들에게는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었고, 서양복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의복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b)는 하부타에를 킨팅하고 새와 꽃이 지수되어 있는 수출용 실내복이고, (c)는 리용에서 제작된 벨벳에 새와 나비 문양이 직조되어 있는 로브이다. (d)는 전통복인 기모노 패턴에 전통문양을 사용하지 않고, 서양풍의 기하문을 이용해 세련된 근대감각을 나타낸 것으로 여성의 단발과 서양화된 기모노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 외 전통화복과 전통문양을 응용해서 개량한 의복을 입거나 서구식 원피스를 입고 메이저기 여학생들에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인 마가렛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러일 전쟁 이후에는 체크무늬처럼 여러 가지색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전개한 켄로크문양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sup>20)</sup> 지금도 다이쇼로망이라는 용어로 당시의 문양과 의복을 레트로의 개념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복장의 경우 새로운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서 직종에 따라서 양장의 원피스 스타일을 근무복으로 주로 입었고, 여배우들이 입은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어 일반인들도 입게 되었다.<그림 9>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은 기모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6)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p.86

17)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p.87

18)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p.113

19) 西村秀一(2011)『近代の服飾-都市風俗の變化と着物文様の變遷』, p.21

20) 홍나영, 신혜성, 이은진 지음(2011)『한중일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교문사, p.412



<그림 9> 양장화된 개량복



<그림 10> アップツパ<sup>21)</sup>

<그림 10>은 양복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았던 다이쇼 초기 오사카 주부들 사이에 여름 부인용 간단복으로 유행했던 アップツパ이다. 옷자락(裾)이 눈에 띄게(ぱっと) 열려있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활동에 편리해 주부들이 애호한 의복으로 전통복에서 양장화로 대중화되는데 발단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2 화장과 헤어스타일

화장(化粧)의 경우 서구의 메이크업이 일부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1922년의 『슈후노토모(主婦之友)』에는 아이새도가 유행하여 여성의 화장법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당시의 잡지에 「긴자에 눈가를 파랗게 바림을 한 여자가 등장한다. 전대미문이다。」라고 인용되었던 만큼 무척 드문 일이었다. 이처럼 다이쇼시대 여성들은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화장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납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백분으로 베이스를 마무리한 후 포인트로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는 홍색을 바르는 것이 기본이었다. 입술(紅)은 휴대하기 쉬운 스틱형태가 구미에서 수입되어 다이쇼 7년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 발매된 후 점점 일반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그림 12>

또한 이 즈음 백분을 바른 피부의 혈색을 좋게 하고 건강한 표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협홍(頬, 볼터치)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서양 여성을 모델로 들어온 화장품 광고를 접한 일본 여성들이 서양여성처럼 가름하고 입체적인 얼굴을 동경해 확산된 것이라고도 볼 수

21) <http://homepage1.nifty.com/zpe60314/afuzoku.htm>

있다. 특히 구미에서 수입된 컴팩트는 기능성과 장신구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여성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화장도구였다.<그림 11>



<그림 11>中山太陽堂クラブ化粧品本舗<sup>22)</sup>



<그림 12>化粧セット<sup>23)</sup>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 활동적으로 변화한 다이쇼시대, 화장은 화려함뿐 만 아니라 매너로서 인식되어 화장품이나 화장도구는 손쉬움이나 기능성이 요구되어지기 시작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다이쇼시대 화장품 광고

<그림 13>은 여성잡지에 등장한 화장품 광고이다. 색조화장보다는 피부결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미안수나 백분 광고 중심인 것으로 보아 아이세도우나 볼터치와 같이 얼굴을 서양인 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은 쉽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머리를 고정하기 위한 머리기름이나 향유의 광고도 눈에 띈다. 단발을 하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한 여전히 전통머리를 고수하거나 긴머리의 속발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2) 『モダン化粧品 -粧いの80年-』ポーラ文化研究所編  
 23) 『モダン化粧品 -粧いの80年-』ポーラ文化研究所編

<표 2> 다이쇼기 전통 헤어스타일의 서양화

속발				
	ひるがほ	銀宵	うづまき	女優髷
일본발				
	島田髷	丸髷	銀杏がへし	桃割れ
단발				

이러한 새로운 화장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머리형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이 요구되었다.

메이지시대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머리형에서 속발이라는 일본형 머리가 나오게 되어 보다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머리형이 유행하였지만 아직 전통적인 일본형의 머리스타일을 많았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말기부터 다이쇼시대에 걸쳐 사회에 진출했던 여성의 요구에 맞추어 전통적인 머리형 보다 쉽고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속발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해 전통적인 일본형 머리를 하는 여성들은 점점 감소했다. 1920년대 등장했던 조유마게(女優髷)는 여성의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던 극장의 여배우들이 했던 것으로 볼륨을 내기 위한 충전물을 넣지 않고 귀밑머리를 붙이는 기름도 사용하지 않는 산뜻한 머리형이었다. 보기에 화려함은 없지만 가볍고 손쉬운 간단한 기능적인 스타일로서 소개되었다. 인기 있는 머리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해졌던 머리형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머리형으로 하려하는 신여성의 의지를 나타낸 머리형이었다.

1921년부터는 유행을 주도해 가는 신여성들 중 단발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메이지

시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단발령이 실시되었을 때 여성들 중 문명개화의 머리모양인 단발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나라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단발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반 여성들에게 단발은 파격적인 스타일로 받아들여졌다.<sup>24)</sup>

## 4. 나오며

다이쇼 시대는 산업화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근대적 일상생활과 서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시대 의복에 있어 서양화의 형태는 첫째, 서양복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 둘째, 착장방법에 있어 일본과 서양식 의복을 절충해 입는 화양절충 양식, 셋째, 전통의복의 요소 속에 약간의 개량을 통해 서양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양문화와 의복에 대한 동경과, 유행의복을 입을 수 있다는 과시욕이 포함된 의복행동으로 보여지며, 세 번째의 경우 도시의 발달과 산업 발달에 맞추어 전통의복의 비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성이 포함된 의복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화의 이면에는 도시화에 따른 생활개선운동과 관동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나타난 회복의 비활동성을 개선하여 근대 생활에 맞는 의복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성잡지의 확산은 여성들에게 서양 여성들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과 화장, 헤어스타일을 소개해 주고 이를 통해 서양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기 일본여성의 복식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는 개항이후 서양과 동양이라는 문명충돌에 이어 서양화된 일본 문화 양상을 알 수 있고, 복식의 근대화 연구에 있어 비교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현대복식에 있어 나타나는 서양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4) 이행화·이경규(2012)「1920년대 일본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日本近代學研究』제35집



【參考文獻】

나리타 류이치·서민교 옮김(2003)『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뿌리와 이파리  
박미경·홍선영 역·시미즈 이사오 저(2008)『프랑스인 풍자화가 조르주 비고가 본 근대일본』어문학사  
이행화·이경규(2012)「1920년대 일본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 고찰」『日本近代學研究』제35집  
코이케미즈에 著·최은주 역(2004)『日本生活文化史』어문학사  
함동주(2010)「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경험과 이상적 여성상-『主婦之友』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제41집  
홍나영, 신혜성, 이은진 지음(2011)『한중일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교문사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石田あゆ(2001)「大正期婦人雑誌における女性・消費イメージの變遷-『婦人世界』を中心に-」『京都社會學年報』 第9號  
金子幸子(1999)『近代日本の女性像』社會思想社  
小池三枝·谷田闕次(1989)『日本服飾史』光生館  
\_\_\_\_\_ (1991)『服飾の表情』勁草書房  
汐文社 (2007)『明治・大正・昭和のくらし②大正のくらしと文化』汐文社  
岡村 道雄 외 (2002)『学習漫画 日本の歴史 大正時代 -大正デモクラシー』集英社  
日本の歴史シリーズ 2 0『大正デモクラシー』世界文  
平松陸円(2009)『化粧にみる日本文化』水曜社  
村田裕子(2004)「大正期における洋装子供服について-雑誌『主婦之友』より」『大谷女子短期大学紀要』48  
『モダン化粧史 -粧いの80年-』ポーラ文化研究所編  
<http://kahuetaisyourouman.web.fc2.com/fassyon.html>(ファッション大正)  
<http://homepage1.nifty.com/zpe60314/afuzoku.htm>

---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

---

 <要旨>
 

---

### 다이쇼 시대의 여성 복식에 나타난 서양화 현상

다이쇼 시대는 산업화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근대적 일상생활과 서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시대 의복에 있어 서양화의 형태는 첫째, 서양복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 둘째, 착장방법에 있어 일본과 서양식 의복을 절충해 입는 화양절충 양식, 셋째, 전통의복의 요소 속에 약간의 개량을 통해 서양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양문화와 의복에 대한 동경과, 유행의복을 입을 수 있다는 과시욕이 포함된 의복행동으로 보여지며, 세 번째의 경우 도시의 발달과 산업 발달에 맞추어 전통의복의 비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성이 포함된 의복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화의 이면에는 도시화에 따른 생활개선운동과 관동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나타난 회복의 비활동성을 개선하여 근대 생활에 맞는 의복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성잡지의 확산은 여성들에게 서양 여성들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과 화장, 헤어스타일을 소개해 주고 이를 통해 서양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 Westemization of Japanese Women's Clothing Style in the Taisho period

The Taisho period is perceived as the starting point from which Japan started taking its shape as a modern state as industrialization proceeded compressively across the Japanese society. As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development of cities, this period enabled modern lifestyles and subsequent novel cultural experiences to be widely diffused to a wider range of people and the society they inhabited on the whole.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of such epochal changes, the sociocultural way in which clothing style has changed also takes a central position.

The tendency that clothing style has become westernized during the Taisho period is as follows: [1] the plain imitation of westernized clothes, [2] the negotiated style that selectively compromises Japanese and western styles in terms of how clothes are worn and [3] the westernized style that adopts and slightly improves elements of traditional clothing styles. While the first and second styles tend to be shown as clothing styles that encompass the sense of showing-off that trendy clothes can be worn as well as aspiration of western culture and its clothes, the third style as pragmatic aiming at ameliorating immobility of traditional clothes keeping pace with urba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is westernized phenomenon that emerged from the Japanese clothing style lies in the historical backdrop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wo factors. Firstly, then societal movement of improving lifestyle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secondly, the societal demand of clothes that could meet modern lifestyle by rectifying the immobility of traditional clothes which emerged following painful experiences of such natural disasters as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The popularization of women's magazine resulted in introducing Japanese women lifestyles of western women that included new styles of clothes, make-up and hairstyles, through which Japanese people could experience and receive westernization relatively naturally.